

[DOI] <http://dx.doi.org/10.21487/jrm.2021.11.6.3.197>

**【연구논문】**

**교사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의 관계:  
성차별지각과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양난미\*\*·이명신\*\*\*·홍은솔\*\*\*\*

**논문요약**

본 연구는 중등학교 교사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성차별지각과 우울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중등학교에 재직 중인 남녀교사를 대상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 성차별지각을 측정하였고, 412명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성차별지각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낮을수록 성차별지각의 수준이 높아졌는데 남성의 경우 그 관련성이 여성보다 강했다. 셋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과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낮을수록 성차별지각의 수준이 높아졌고 이로 인해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관계가 남성의 경우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제언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교사의 우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성차별지각, 성별의 조절효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9S1A5C2A02082588)

\*\*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BK4 Program 참여 교수, 제1저자

\*\*\* 경상국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상국립대학교 심리학과 BK4 Program 참여대학원생(석사과정), 교신저자

## I. 서론

우울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이다. 2020년 OECD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우울증 유병률은 36.8%로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았다(켄서앤서 2021). 우울은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서 나타날 수 있는데, 전교조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작업환경의학과(2016)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사집단은 일반인구집단에 비교해서 더 높은 우울증 빈도와 비율을 보였다. 일반인구와 비교하여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집단의 질병이나 사망 수준이 낮게 나타나는 건강근로자효과(Healthy worker effect) 역시, 교사집단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우리나라의 교사들은 OECD 교사들과 비교하여 교직이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한국교육개발원 2020).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교사들이 OECD 국가의 교사들보다 교직에서 경험하는 직무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우울로 이어질 수 있다(황현숙·이지연·장진이 2012). 이와 같은 결과들은 다른 직업집단 및 다른 나라 교사에 비교해서 우리나라 교사가 우울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었던 대구 지역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구의 교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비일상적인 일들, 감염에 대한 두려움 등을 경험함에 따라 스트레스가 가중되었고 우울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증가하였다(대구광역시교육청 2020). 이러한 점을 고려해보았을 때 장기화된 코로나는 대구 지역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사에게 이와 비슷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교사가 경험하는 우울은 교사 개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최은숙·권민정·이해준·조교영 2017).

우울은 2주 이상 우울한 기분이 지속되고,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이 뚜렷하게 저하되며, 의미 있는 체중의 변화 및 불면이나 과다수면이 나타나고, 정신운동이 초조해지거나 지연되며, 활력 상실 및 피로와 함께 무가치감 및 과도한 죄책감을 느끼며, 사고력 및 집중력이 저하되거나 우유부단해지며, 자살에 대한

반복적인 사고 및 시도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APA 2015). 우울에 개입하기 위한 인지치료의 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는데(김성민 2004), 인지행동적 치료에서는 역기능적인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자신이 경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우울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전통적 인지치료의 관점에서 우울은 반추, 귀인, 인지삼체 등 개인적인 측면의 인지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김은하·김보라 2018; 권석만 2003), 최근에는 사회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이용·임란 2014). 이런 점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지각할 수 있는 불공정성의 측면이 한국인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원인으로 자주 언급되고 있는데(김은하·김수용 2017), 이는 '수저론', '삼포세대'라는 용어가 생겨날 만큼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신혜진 2018).

이러한 측면에서 불공정을 살펴볼 수 있는 인지적 심리적 변인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이하 BJW)을 고려할 수 있다. BJW는 개인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고 동시에, 사람들이 마땅히 얻을 것을 얻는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Dalbert 1997).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는 개인 성격 특성이자 인지 양식인 BJW는 다양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유지된다(Dalbert 2001). Dalbert(1999)는 BJW가 단일 차원이 아닌 다차원적인 개념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를 개인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으로 구분하였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이하 BJW-self)은 개인이 자신이 사는 세상과 관련하여 자신이 노력한 만큼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General belief in a just world: BJW-others)은 개인이 타인과 관련하여 가지는 믿음으로 그들이 사는 세상이 그들이 노력한 만큼 그에 마땅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 믿는 것을 의미한다. BJW-self는 삶의 만족, 자존감 등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BJW-others는 노인, 장애인 등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 고정관념, 편견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전주원 2019).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BJW는 통제소재, 인지적 유연성 등 인지관련 변인과 연구

가 진행되었으며,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진로 적응성, 취업 스트레스 등 진로 및 취업 등과 같은 변인들과 함께 연구되었다(양난미·김미경·이아라·장지선 2021). 특히, BJW는 우울과 부적 관련성을 보이는데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을수록 개인이 지각하는 우울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김수용 2017; 김은하·전주원 2019; 신혜진 2018; 윤소미 2019; 홍남영 2020). BJW와 우울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홍남영 2020; Dalbert 2001). 첫 번째로 BJW는 개인이 공정하게 행동하게 한다. BJW 수준이 높은 개인은 BJW에 맞게 공정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믿고 정당하게 행동하도록 노력한다. 더 나아가 타인에 대해서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정당하게 행동할 것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며, 이는 높은 수준의 BJW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두 번째로 BJW 수준이 높은 개인은 세상은 공정하고, 타인 또한 자신을 공정하게 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타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 불편감을 덜 느끼는 경향이 있다. 세 번째로 BJW 수준이 높은 개인은 그들의 노력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기에 그들이 맡은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해 그들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확신하며, 위협적으로 느끼지 않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공적인 성취 행동으로 이어진다. 네 번째로 BJW 수준이 높은 개인은 부당한 경험을 하였을 때 이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방어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BJW가 높은 개인은 세상이 공정하다고 여김으로써 부당한 경험을 적게 하게 되고 이는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BJW와 우울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BJW와 우울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선 성차별지각과 성별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교육부(2021)에 따르면, 교직 사회에서 여성 교사의 수는 남성 교사와 비슷하거나 더 많았다. 그러나 교감 이상의 관리직에 재직 중인 여성 교사의 수는 남성 교사와 비교하였을 때 적은 편에 해당하였다. 조직 문화가 지도자에 따라 영향을 받고, 이러한 양상이 교직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접을 고려하였을 때(김영옥·정바울·김현진, 2012), 교직 사회 역시 성차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오정란 2003). 또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폭력 피해 경험 설문조사에서

여성 교사들이 호소하는 피해가 여전하고, 이러한 양상이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많이 나타났으며, 특히 20~30대 여교사 66%가 경험했다는 결과를 고려하였을 때 여성 교사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교육부 2021). 한편, 최근 들어 여성 교사뿐만 아니라 남성 교사가 경험하는 성차별을 살펴볼 필요성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관리직에 재직 중인 여성 교사의 수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점차 높아지고 있다(교육부 2021). 또한, 이와 함께 여성 교사의 비율도 높아지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남성 교사들도 상대적 불평등 등을 경험할 수 있다(손형국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녀교사 집단을 중심으로 BJW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차별이란 기본적으로 평등한 지위의 집단을 자의적인 기준에 의해 불평등하게 대우함으로써 특정 집단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는 통제 형태를 의미한다(두산백과 2010). 여러 차별 중에서 성차별은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에 근거하여 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으로써 사회적 관습에 의해 강화되고 있는 신념이다(김재은·김지현 2016). 성차별적 관행은 오랜 기간 지속이 되었지만, 여성의 권리가 신장 됨에 따라 여성의 성차별에 관한 연구가 학문적으로 시작되었다(박지현·탁진국 2008). 성차별지각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지각하는 성차별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다(홍성혜 2019).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개인적 및 제도적 성차별에 대한 반응과 이러한 반응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Blodorn, O'Brian와 Kordys(2012)은 여성은 남성보다 성차별지각이 더 높았고 개인적 성차별이 제도적 성차별보다 성별 격차가 현저하게 더 컸다. 유사하게 홍콩에 거주하는 사무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성차별지각, 성별 고정관념, 직장에 대한 헌신, 퇴직 의사 간의 관계를 살펴본 Foley, Ngo와 Loi(2006)도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성차별을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성차별지각에 관한 연구는 주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다수 진행되었다(김은하 2018; 김은하·김경희·박한솔·정보현 2018; 김은하·백혜영 2018; 강혜원·이정윤 2020). 이는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여성의 인권 보호 및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전통적 성역할과 남성 중심적 조직 문화로 인해 성차별을 경험하는 여성이 많으며(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차별지각은 남녀의 성차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게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차별은 다른 차별과 마찬가지로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성차별 경험은 분노, 혐오, 우울, 공포 등의 부정적 정서반응을 일으키고(Bosson, Pinel, and Vandello 2010),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심리적 문제를 경험하게 한다(Pascoe and Smart Richman 2009). 유사하게 성차별이나 인종차별을 경험하면 할수록 자존감과 삶의 만족이 낮아지며 우울과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는 결과도 보고되었다(Schmitt, Branscombe, Postmes, and Garcia 2014). 국내연구에서도 성차별 경험은 우울과 유의한 관련이 나타났는데 성차별 경험이 많다고 지각할수록 우울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김보라 2018; 김은하·김수용·김도연·박한솔·김지수 2017).

BJW와 성차별지각의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는데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에 대한 지각이 낮고 BJW가 낮을수록 성차별에 대한 지각이 높을 것을 예상하게 한다(김은하·박한솔 2018; 홍남영 2020). 또한 BJW가 낮을수록 직업적 삶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을 높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었고(Dalbert, Fisch, and Montada, 1992) 유사하게 색맹에 대한 인종적 태도 역시 BJW와 강한 관련이 있었다(Neville, Lilly·Duran, Lee, and Browne 2000). 마지막으로 BJW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를 직접 연구한 결과는 찾기 어렵지만 최근 김은하 등(2017)은 직장 내 성차별 경험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BJW-self가 유의한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직장내 성차별 경험을 많이 할수록 세상이 정당하다는 신념이 낮아지며 이는 높은 우울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Choma, Hafer, Crosby, and Foster 2012)에서 BJW의 수준이 높고 성차별이 모호한 상황에서 성차별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지각은 낮아지며 성차별지각이 낮을수록 우울 역

시 낮아짐을 예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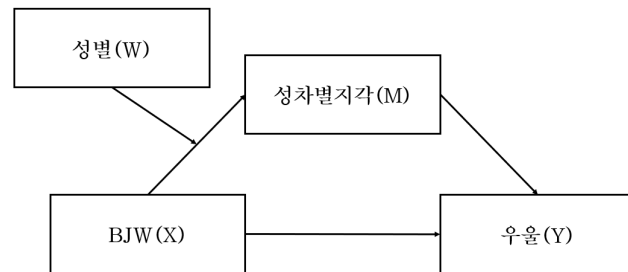
더하여 최근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역시 이러한 차별에 민감해지면서 성차별 문제에 대한 2030대의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성별에 따라 차별에 관한 입장에 차이가 커서 성별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유주연·안현의 2020). 이러한 점에서 성별 역시 이들 변인 간에 차별적인 영향을 예상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대부분의 연구에서 BJW 수준에는 성별 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양은정·심은정 2020; 정지수 2018;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 2012; 홍남영 2020; Rezrazi and Gangloff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지각과 함께 성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달베르트(Dalbert 2001)는 BJW가 인지적 발달과 함께 어린 시절 동안 발달하는 안정적인 성격 특성이라고 하였다. 아동기에는 성 고정관념, 성역할 등 성과 관련된 인지적 요소들이 함께 형성되는데 이는 호르몬 등 생물학적 요인과 부모, 사회 등 환경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Berk 2013; 이종숙·신은수·안선희·이경옥 2015 재인용). 특히, 성 고정관념은 다른 고정관념들에 비해 사회적 규준을 부여하는 측면이 강하기에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이러한 고정관념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이에 동일시하거나 조절하는 경향을 보인다(방희정·조혜자 2004). 여성의 지위가 변화함에 따라 성 고정관념은 완화되었지만,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과 비교하여 더 높은 성고정관념 수준을 보고하고 있다(이현주 2012 재인용). 이런 우리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교사 대부분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의 성별에 따라 명확한 성 고정관념을 형성해왔고 이는 BJW와 우울의 관계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게 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성별에 따라 BJW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자에 비교해서 남자가 더 높은 수준의 BJW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양은정·심은정 2020; 정지수 2018;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 2012; 홍남영 2020; Rezrazi and Gangloff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별이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를 조절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을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높은 수준의 성차별지각으로 인해 우울을 경험하는 교사들에 대한 이해로 확장될 수 있으며, 이들의 성별에 따른 체계적인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성차별지각이 성차별적인 상황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BJW와 우울의 관계를 성차별지각이 매개하는가? 둘째, BJW와 성차별지각의 관계를 성별이 조절하는가? 셋째, BJW이 성차별지각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이 조절하는가?

[그림 1] 연구모형



## II. 방법

### 1. 연구참여자 및 절차

전국의 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중등교사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총 414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이 중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2명의 자료를 제외하여 총 412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자 144명(35%), 여자 268명(65%)이었으며, 연령대는 20대 97명(23.5%), 30대 202명(49%), 40대 72명(17.5%), 50대 37명(9%), 60대 4명(1%)이었다. 재직 학교는 중학교 201명(48.8%), 고등학교 211명(51.2%)이었고, 재직



학교소재지는 부산·울산·대구·경상지역 241명(58.5%), 서울·인천·경기지역 115명(27.9%), 광주·전라지역 30명(7.3%), 대전·충청지역 21명(5.1%), 강원지역 5명(1.2%)이었다. 교직 경력은 10년 미만 281명(68.2%), 10년 이상 20년 미만 82명(19.9%), 20년 이상 30년 미만 25명(6.1%), 30년 이상 24명(5.8%)이었다. 설문 조사에 앞서 설문 결과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안내하였고, 설문 조사에 참여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 설문을 작성에는 약 25-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설문 참가에 대한 보상으로 4000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2021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진행되었다. 온프라인 설문조사는 각 교육대학원 재학생을 위한 교사 커뮤니티, 개별 중고등학교 학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전달되도록 하였다.

## 2. 측정도구

### 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BJW를 측정하기 위해 루카스, 알렉산더, 파이어스톤과 레프레톤(Lucas, Alexander, Firestone, and Lebreton, 2007)이 개발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Procedural and Distrivutive Just World Belief Scale; PDJWBS)”를 루카스, 주다노프와 알렉산더(Lucas, Zhdanova, and Alexander 2011)가 개정하고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과 김수용(2017)이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어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The Korean Version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DJ-self(예: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한다.’), PJ-self(예: ‘나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한 방식으로 대한다.’), PJ-others(예: ‘사람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당한 방식으로 대한다.’), DJ-others(예: ‘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과 처벌을 받으며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을 측정하는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당 4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7점 Likert식 척도(1=매우 동의하지 않음, 7=매우 동의)로 측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 혹은 타인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하, 김지수, 박한솔, 김도연과 김수용(2017)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전체 문항 .90, PJ-self .84, PJ-others .88, DJ-self .83, DJ-others .90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94, PJ-self .83, PJ-others .86, DJ-self .90, DJ-others .86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개념타당도는 .86이었다.

##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라들로프(Radloff 1977)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를 전경구, 최상진과 양병창(2001)이 통합하고 타당화한 통합적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임상적 장면뿐만 아니라 비임상적 장면에서도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우울 경험 중에서도 우울 정서를 중심으로 측정하고 있다(전경구·권기덕·김상기, 1999). 우울 감정(예: '지금까지의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긍정적 감정(예: 다른 사람들만큼 능력이 있다고 느꼈다.), 신체/행동 둔화(예: '무슨 일을 하든 정신을 집중하기가 힘들었다. '), 대인관계(예: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를 측정하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순서대로 7문항, 4문항, 7문항, 2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극히 드물게(1일 이하)'는 0점, '가끔(1~2일)'은 1점, '자주(3~4일)'는 2점, '거의 대부분(5~7일)'은 3점으로 측정된다. 긍정적 감정에 해당하는 4문항은 역채점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난 1주일 동안 경험한 우울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서숙희 2020). 전경구·최상진·양병창(2001)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91로 나타났다. 서숙희(2020)의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91, 우울감정 .65, 긍정감정 .88, 신체 및 행동 둔화 .76, 대인관계 .90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93, 우울감정 .90, 긍정감정 .77, 신체

및 행동 둔화 .85, 대인관계 .79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개념타당도는 .87로 나타났다.

### 3) 성차별지각

본 연구에서는 교사의 성차별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카머런(Cameron 2001)이 개발한 지각된 개인 차별(Perceived Personal Discrimination) 척도와 지각된 집단 차별(Perceived Group Discrimination) 척도를 유주연과 안현의(2020)가 변안하고 변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 차원 성차별지각(예: '나는 내 성별로 인해 차별을 당한 적이 있다.'), 여성 대상 성차별지각(예: '한국의 여성들은 집단으로써 차별받는다.'), 남성 대상 성차별지각(예: '한국의 남성들은 집단으로써 차별받는다.')을 측정하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요인당 3문항으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6점 척도(1=전혀 아니다, 6=매우 그렇다)로 측정되며, 이 중 두 문항은 역채점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대상에 대한 사회구조적 성차별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의미한다. 카머런(2001)의 연구에서 원척도의 신뢰도(Cronbach's  $\alpha$ )는 지각된 개인 차별 척도 .70, 지각된 집단 차별 .68로 나타났다. 유주연과 안현의(2020)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 여성의 경우, 개인 차원 성차별지각 .92, 여성 대상 성차별지각 .85, 남성 대상 성차별지각 .73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개인 차원 성차별지각 .87, 여성 대상 성차별지각 .78, 남성 대상 성차별지각 .5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항 .78, 여성의 경우, 개인 차원 성차별지각 .90, 여성 대상 성차별지각 .76, 남성 대상 성차별지각 .66, 남성의 경우, 개인 차원 성차별지각 .88, 여성 대상 성차별지각 .66, 남성 대상 성차별지각 .59으로 나타났다. 본 척도의 개념타당도는 .67로 나타났다.

### 3.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alpha$* 를 산출하였다. 또한, 개념타당도 확인하였는데 .7이상일 때 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6~.7 사이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기준(배병렬 2011)에 따랐다. 둘째, 주요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이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기에 앞서 조절된 매개분석의 가정을 확인하였다. 제임스와 브렛(James & Brett, 1984)은 매개과정에서 독립변수가 매개변수로 이어지는 경로, 매개변수가 종속변수로 이어지는 경로 중 하나 또는 모든 경로가 조절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조절된 매개효과이므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로 이어지는 경로는 조절효과가 없어야 한다고 가정하였다(정선호·서동기, 2016 재인용). 따라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에 앞서, 기본 가정을 충족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순 조절 모형인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여 BJW와 우울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의 효과가 없음을 확인하였다(Muller, Judd, and Yzerbyt 2005). 넷째,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효과, 조절효과가 유의한지 검토한 후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Hayes, 2017). 이때,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실시하였다(Shrout and Bolger 2002). 단순 매개 모형인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사용하여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PROCESS macro의 model 1을 사용하여 BJW와 성차별지각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조절효과가 유의한 경우, 조절변수에 따른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기울기(Simple Slope)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모형과 같이 단순 매개 모형과 함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에서 조절변수의 조절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Macro PROCESS의 model 7을 사용하여 BJW와 우울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과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5.0과 Hayes(2020)의 PROCESS macro 3.5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모형은 위에 제시한 바와 같으며, 수식으로 나타내었을 때는 수식 1, 수식 2와 같다. 수식 1의 경우 매개변수인 성차별지각(M)에 대하여 X는 BJW, W는 성별, XY는 성차별지각과 성별의 상호작용항을 나타내며,  $a_1$ ,  $a_2$ ,  $a_3$ 는 각각

의 회귀계수 즉, 효과크기를 의미한다.  $i_M$ 은 회귀상수,  $e_m$ 은 추정오차를 의미한다. 수식 2의 경우 우울( $Y$ )에 대하여 BJW가 성차별 지각을 매개로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c'$ ,  $b$ 는 효과크기,  $i_Y$ ,  $e_Y$ 는 회귀상수와 추정오차를 의미한다.

$$M = i_M + a_1X + a_2W + a_3XW + e_M \quad (1)$$

$$Y = i_Y + c'M + bM + e_Y \quad (2)$$

### III. 결과

#### 1. 기술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인 BJW, 우울, 성차별지각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BJW는 우울( $r=-.42, p<.001$ ), 성차별지각( $r=-.37, p<.001$ )과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우울은 성차별지각( $r=.33, p<.001$ )과의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표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N=412)

변인	BJW	우울	성차별지각
BJW	-		
우울	-.42***	-	
성차별지각	-.37***	.33***	-
평균	4.24	.71	3.17
표준편차	.89	.53	.90
왜도	-.22	.98	-.27
첨도	.59	.46	-.24

주. \*\*\* $p < .001$ , 점수 범위: BJW(1-7), 성차별 지각(1-6), 우울(0-3점)

## 2.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cro PROCESS의 model 1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BJW가 우울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에 대한 BJW의 주효과가 성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매개된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가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N=412)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성차별지각						
상수	2.04	.41	4.98	.00	1.23	2.84
BJW	-.33	.09	-3.59	.00	-.51	-.15
성별	-.18	.24	-.74	.46	-.66	.30
BJW×성별	.05	.06	.94	.35	-.06	.16

## 3.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 검증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cro PROCESS의 model 4를 이용하였다.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BJW는 성차별지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B=-.37, p<.001$ ), 성차별지각은 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12, p<.001$ ). 또한 BJW와 우울 간의 총효과는  $B=-.25(p<.001)$ 이었으나 매개변인인 성차별지각이 투입되면서 BJW와 우울 간의 직접효과가  $B=-.21(p<.001)$ 로 감소하여 성차별지각이 매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3〉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성차별지각						
상수	4.74	.20	23.64	.00	4.35	5.14
BJW	-.37	.05	-8.02	.00	-.46	-.28
종속변인: 우울						
상수	1.21	.18	6.88	.00	.86	1.56
BJW	-.21	.03	-7.24	.00	-.26	-.15
성차별지각	.12	.03	4.20	.00	.06	.17

주. 비표준화 계수로 제시하였다.

〈표 4〉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 검증

효과	B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총효과	-.25	.03	-.30	-.20
직접효과	-.21	.03	-.26	-.15
간접효과	-.04	.01	-.07	-.02

#### 4.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검증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cro PROCESS의 model 1를 이용하였다.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시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BJW와 성별의 상호작용 항은 유의한 정적효과를 나타냈으며( $B=.22$ ,  $p<.05$ ), 상호작용 항을 통해 추가된 설명력은 유의하였다( $\Delta R^2=.01$ ,  $\Delta F=6.33$ ,  $p<.05$ ). 이는 성차별지각에 대한 BJW의 영향이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효과가 있음을 의미

한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단순기울기 검증을 하였다.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고, 그래프는 그림 2에 제시하였다. 남자( $B=-.44, p<.01$ )와 여자( $B=-.22, p<.01$ )의 경우 모두 기울기 계수는 유의하였다. 또한, 남자의 경우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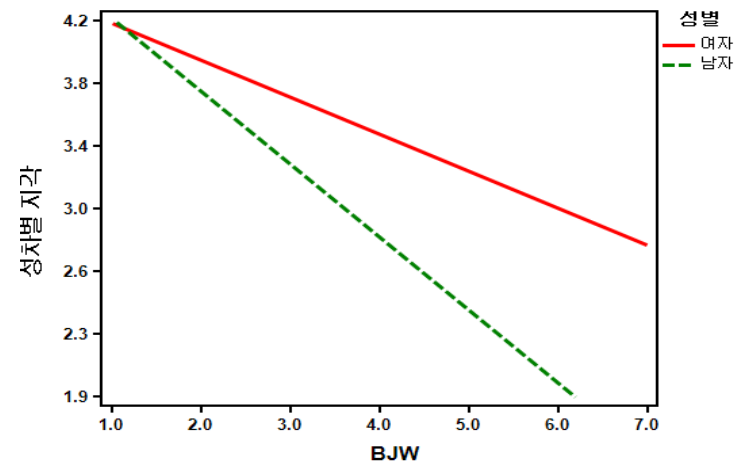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성차별지각						
상수	4.87	.64	7.55	.00	3.60	6.14
BJW	-.66	.14	-4.60	.00	-.95	-.38
성별	-.25	.38	-.65	.51	-1.00	.50
BJW×성별	.22	.09	2.52	.01	.05	.39
상호작용에 따른 R <sup>2</sup> 증가	△R <sup>2</sup>		△F		p	
	.01		6.33		.01	

〈표 6〉 성별에 따른 단순기울기 유의성 검증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성차별지각						
남자	-.44	.07	-6.69	.00	-.57	-.31
여자	-.22	.06	-3.98	.00	-.34	-.11



[그림 2]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



### 5. BJW, 성차별지각 및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BJW, 성차별지각 및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acro PROCESS의 model 7를 이용하였다. 신뢰구간은 95%로 설정하고, 부트스트랩 표본은 5,000개로 지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실시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실시한 결과, BJW와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는 성차별지각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B=.22, p<.05$ ), 성차별지각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12, p<.01$ ). 또한, 조절된 매개지수(Index of moderated mediation)의 통계적 유의성에 대한 검증을 살펴보았으며, 이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살펴본 결과, 0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내에 포함되지 않아 ( $CI=.005\sim.056$ )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성차별지각을 매개로 BJW와 우울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절된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별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를 살펴보았으며, 결과는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0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내에 포함되지 않아( $CI=-.09\sim-.03$ )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부적인 영향( $B=-.05$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 0이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내에 포함되지 않아( $B=CI=-.05\sim-.01$ )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적인 영향( $B=-.03$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에 제시한 수식 1, 수식 2를 적용하여 수식으로 나타냈을 때는 다음과 같이 수식 3, 수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M = 4.8702 - 0.6624X - 0.2501W + 0.2190XY \quad (3)$$

$$Y = 1.2099 - 0.2059X + 0.1183M \quad (4)$$

〈표 7〉 BJW, 성차별지각 및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별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종속변인: 성차별지각						
상수	4.87	.64	7.55	.00	3.60	6.14
BJW	-.66	.14	-4.60	.00	-.95	-.38
성	-.25	.38	-.65	.51	-1.00	.50
BJW×성	.22	.09	2.52	.01	.05	.39
종속변인:우울						
상수	1.21	.18	6.88	.00	.86	1.56
BJW	-.21	.03	-7.24	.00	-.26	-.15
성차별지각	.12	.03	4.20	.00	.06	.17

〈표 8〉 성별의 조절된 매개지수

조절된 매개지수	SE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03	.01	.005(.0046)	.06(.0555)

〈표 9〉 성별에 따른 조건부 간접효과

변인		<i>B</i>	<i>SE</i>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성별	남성	-.05	.02	-.09	-.03
	여성	-.03	.01	-.05	-.01

#### IV. 논의

본 연구는 교사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이러한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사들이 경험하는 우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고, 체계적인 개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의 부분 매개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JW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성차별지각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BJW가 낮을수록 성차별지각을 높이 지각한다는 선행연구(김은하·김수용·김도연·박한솔·김지수 2017; Choma, Hafer, Crosby, and Foster 2012; Dalbert, Fisch, and Montada 1992; Neville, Lilly, Duran, Lee, and Browne 2000)를 확인하는 결과이며 성차별지각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김은하·김보라 2018; 김은하·김수용·김도연·박한솔·김지수 2017; Bosson, Pinel, and Vandello 2010; Schmitt, Branscombe, Postmes, and Garcia 2014)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변인들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사의 BJW가 낮을수록 성차별지각이 높아지고, 성차별지각이 높아지면 우울이 높아지며 동시에 BJW가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교사의 우울을 이해하는 방안 중의 하나가 교사들의 BJW와 성차별지각 정도를 확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즉, 세상이 정당하다는 믿음이 낮을수록 성차별을 지각하는 정도가 높으며 성차별

을 높게 지각할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우울한 교사들의 세상에 대한 신념을 확인하고 성차별경험에 대한 인지적 판단을 탐색하는 것이 우울한 교사에 개입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둘째,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BJW가 높을수록 성차별지각이 낮아지는데 이러한 양상이 여성교사보다 남성교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워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남성의 BJW가 여성의 BJW보다 높다는 연구결과(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양은정·심은정 2020; 정지수 2018;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 2012; 홍남영 2020; Rezrazi and Gangloff 2020)가 나타났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여성교사의 BJW가 남성교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사회에서 여성교사의 높은 위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보인다. 교사는 우리사회의 다른 직업군에 비교하여 안정적인 공무원 직군이며 교육부(2021)에 따르면, 전체 교원 대비 여성교원 비율은 중학교는 71.0%, 고등학교는 56.0%로 전년 대비 각각 0.5%, 1.2% 상승하였다. 또한, 교감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학교는 35.3%, 고등학교는 17.3%로 전년 대비 각각 1.8%, 1.5% 상승하였다. 이처럼 여성 교사가 증가하는 동시에 고위 관리직을 맡는 비율이 늘어나는 상황은 여성교사가 사회의 다른 구성원이나 직업집단에 비교하여 개인이 자신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얻고 동시에, 사람들이 마땅히 얻을 것을 얻는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믿음이 더 강해질 수 있도록 하는 원인 중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성차별지각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홍성혜 2019; Blodorn, O'Brian, and Kordys 2012; Foley, Ngo, and Loi 2006). 비록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여성의 지위가 충분히 향상되었다고 지각하고,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이 우위에 있다고 보는 '적대적 성차별·반페미니즘' 유형의 남성이 20대 남성의 50.5%, 30대 남성의 38.7%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마경희 외 2018), 20~30대 남녀집단에서 남성의 53.5%

가 한국 사회의 역차별 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주연·안현의 2020). 그러나 여전히 전반적인 성차별지각의 수준은 남성교사보다는 여성교사에서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결과를 적용한다면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 세상이 공정하다는 신념을 강화시킬 수 있다면 여성교사의 성차별지각보다는 남성교사가 성차별지각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BJW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성차별지각을 통한 성별의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교사의 경우에 BJW가 성차별지각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력이 여성교사에 비교하여 강한 것을 의미한다. 즉, BJW가 낮은 경우 성차별지각의 수준이 증가하여 높은 우울로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러한 관련성이 여성교사보다 남성교사가 더 컸다. 이러한 결과는 BJW가 성차별지각에 부적 영향을 미치며, 성차별 지각이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또한, 교직 사회 내에서 남성중심적 교직 사회에서 여성 교사가 경험하는 성차별 경험(오정란 2003), 다수의 여성으로 이루어진 사회에서 남성 교사가 경험하는 성차별 경험(손형국 2015)을 고려하였을 때 이러한 양상이 성별에 구분 없이 모든 교사에게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본 연구에 참여한 남성 교사의 연령대가 절반 이상이 20·30대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이들이 현대 한국 사회에서 경험하는 역차별에 대한 인식이 반영되어 남성 교사에게 더 뚜렷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유주연·안현의 2020). 상담 장면에서 이를 고려해보았을 때, BJW 수준이 낮은 경우 남녀교사 모두 성차별 경험으로 인해서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렇게 성차별 경험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 내담자가 성차별 경험을 어떤 방식으로 지각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BJW의 수준은 어떠한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남성교사의 경우는 이러한 양상이 여성교사에 비교해서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신념이 강화될수록 남성교사의 성차별지각과 우울은 감소할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 간의 관계를 성차별지각을 통해 살펴보았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울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꾸준히 진행됐지만(김은하·김수용 2017; 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김은하·전주원 2019; 신혜진 2018; 윤소미·2019; 홍남영 2020), 두 변인 간의 관계를 성차별지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미투 운동 등과 같이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으며(구미영, 김종숙, 윤덕경, 천재영, 양승엽, 김근주, 2020),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교직 사회에서도 지속적인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므로(교육부 2021) 성차별지각을 통해 변인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둘째, BJW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주로 성별에 구분을 두지 않거나 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는데(양난미·김미경·이아라·장지선 2021), 본 연구에서는 성별을 나누어 살펴봄으로써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도 초점을 두어 변인 간의 관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교사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우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였으며, 더 나아가 개입 방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들이 대부분 20~30대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현재 중·고등학교 교사들의 평균 연령대를 살펴보면, 중학교는 42.8세, 고등학교는 43.1세에 해당하였다(교육부 2021).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후속 연구에서는 연령대를 다양화하여, 연령대별 시각차 및 세대별 특성이 다름에 대한 부분에 따라 연령별에 따른 관계 양상을 알아보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BJW와 성차별 경험(김은하·김경희·박한솔·정보현 2018; 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김은하·박한솔 2018; 홍남영 2020), 성폭력 이차피해 태도(정지수 2018), 성매매 통념(박은화 2016)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BJW와 성차별지각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변인 간의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관련 변인들을 활용한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성차별지각과 관련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인해 국외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반영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국내의 사회문화적인 측면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 척도를 사용하여, 변인 간의 관계를 재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교사 경력, 보직 등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서는 통제변수를 고려하여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교사라는 특수 직업군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종사하는 다양한 직업군에서 모형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강혜원·이정윤. 2020. “미묘한 성차별 (Gender Microaggression) 에 대한 개념도 연구: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106권 3호: 63-92.
- 교육부. 2021.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www.moe.go.kr/>(검색일: 2021. 09. 01)
- 교육부. 2021. 『학교 내 페미니즘 백래시와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교사 설문조사 보고서』. <https://www.moe.go.kr/>(검색일: 2021. 11. 12)
- 교육부. 2021. 『2021년 교육기본통계 주요 내용』. <https://www.moe.go.kr/>(검색일: 2021. 09. 01)
- 구미영·김종숙·윤덕경·천재영·양승엽·김근주. 2020. 『직장 내 성차별적 괴롭힘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성민. 2004. 『우울과 상위인지 자각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하. 2018.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권 4호: 593-614.
- 김은하·김경희·박한솔·정보현. 2018. “성차별경험과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조절효과: 세계관입증이론을 토대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권 3호: 409-429.
- 김은하·김보라. 2018. “성차별경험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반추 하위유형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권 3호: 335-354.
- 김은하·김수용. 2017.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일반 성인들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 내외통제성을 통한 공동체의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권 1호: 1-22.
- 김은하·김지수·박한솔·김도연·김수용. 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척도 개발 및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권 4호: 643-667.
- 김은하·박한솔. 2018. “성차별경험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미치는 영향:



성별집단자존감을 조절요인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4권 3호: 429-449.

김은하·백혜영. 2018. “성차별경험이 화병에 미치는 영향: 자존감 안정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권 2호: 173-193.

김은하·전주원. 2019.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개인적인 믿음과 일반적인 믿음에 따른 자존감, 우울, 동성애자에 대한 부정적 태도 및 계층차별적주의 태도.” 『인간이해』 40권 1호: 1-21.

김재은·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권 1호: 187-205.

김형렬·이세영·이이령·김학한·이원영. 2016. 『교사 직무스트레스 및 건강실태조사 연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김혜진·박효원·박희진·이동엽·이승호·최인희·길혜지·김정현·이호준. 2020. 『교원 및 교직원환경국제비교 연구: TALIS 2018 결과를 중심으로(II)』. 한국교육개발원.

권석만. 2003. 『현대이상심리학』. 서울: 학지사.

두산백과. 2010. 차별.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145366&cid=40942&categoryId=31614> (검색일: 2021. 08. 30)

대구광역시교육청. 2020. 『대구시교육청, 학생 및 교사 대상 코로나19 재난정신건강평가 결과발표』. <http://www.dge.go.kr/>(검색일: 2021. 09. 01)

마경희·조영주·문희영·이은아·이순미. 2018. 『성불평등과 남성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은화. 2016. 『성매매 통념과 성폭행 사건의 상황적 특성에 따른 피해자 비난의 차이-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박지현·탁진국. 2008. “여성종업원의 조직 내 성차별지각이 경력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 산업 및 조직』 21권 2호: 245-263.

방희정·조혜자. 2004. “성 고정관념 활성화가 남녀의 자아해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0권 1호: 83-106.

-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 원리와 실제』. 서울: 청람.
- 서숙희. 2020. 『우울 대학생을 위한 마음챙김 도입 긍정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손형국. 2015. “초등학교 남교사의 교직생활에 관한 문화기술적 연구.” 『한국교육학연구』 21권 4호: 347-372.
- 신혜진. 2018.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대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인지적 유연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권 5호: 413-437.
- 양난미·김미경·이아라·장지선. 202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관한 연구동향.” 『인문사회 21』 12권 2호: 1823-1838.
- 양은정·심은정. 2020. “대학생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잠재프로파일과 삶의 질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7권 1호: 225-247.
- 오정란. 2003. “전문직에서의 여성소의 현성과 대안 탐색: 교직을 중심으로.”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6권 4호: 25-58.
- 유주연·안현의. 2020. “성인초기 남녀의 성차별 메타-인식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유형별 성역할갈등, 이성과의 거리감, 성차별 논쟁에 대한 지지도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6권 4호: 351-378.
- 윤소미. 2019.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속박감과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캔서앤서. 2021. “코로나19시대, 국민 4명중 1명은 우울증.... OECD 1위.” <https://www.canceransw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94>(검색일: 2021. 08. 01)
- 이용·임란. 2014. “박탈경험과 불평등인식의 관계연구: 우울의 매개효과검증.” 『보건사회연구』 34권 4호: 93-122.
- 이현주. 2012. “성별과 성역할 고정관념이 자기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의 중단분석.” 『교육심리연구』 26권 2호: 391-412.
- 전점구·권기덕·김상기. 1999. “한국판 CES-D 개정연구: I.” 『사회과학연구』 6권

1호: 429-451.

- 전검구·최상진·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권 1호: 59-76.
- 정선호·서동기. 2016. “회귀분석을 이용한 매개된 조절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5권 1호: 257-282.
- 정지수. 2018. 『남녀의 권위주의 성향, 공정세상 신념과 직장 내 성폭력 이차피해 태도와의 관계: 공감의 매개효과』.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최은숙·권민정·이해준·조교영. 2017. “한국 교사의 심리·사회적 근로환경과 우울 위험의 관련성.”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8권 4호: 463-471.
-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 2012. “한국 대학생의 성차: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을 중심으로.” 『조사연구』 13권 3호: 33-62.
- 홍남영. 2020. 『20-30대 여성의 일상 속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의 관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의 조절된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홍성혜. 2019. 『성 평등 의식이 능력주의와 성차에 따라 성차별 지각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황현숙·이지연·장진이. 2012. “중등학교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경험회피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60권 2호: 495-515.
- APA 저. 권준수, 김재진, 남궁기, 박원명, 신민섭, 유범희, 윤진상, 이상익, 이승환, 이영식, 이현정, 임효덕 역. 2015.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편람 제5판』. 서울: 학지사.
- Berk, E 저. 이종숙, 신은수, 안선희, 이경옥 역. 2013. 『아동 발달』. 서울: 시그마프레스.
- Bosson, J. K., E. C. Pinel, and J. A. Vandello. 2010. “The emotional impact of ambivalent sexism: Forecasts versus real experiences.” *Sex Roles* 62(7): 520-531.
- Blodorn, A., L. T. O'Brien, and J. Kordys. 2012. “Responding to

sex-based discrimination: Gender differences i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implications for legal decision making.” *Group Processes & Intergroup Relations* 15(3): 409-424.

Cameron, J. E. 2001. “Social identity, modern sexism, and perceptions of personal and group discrimination by women and men.” *Sex Roles* 45(11): 743-766.

Choma, B., C. Hafer, and F. Crosby, and M. Foster. 2012. “Perceptions of personal sex discrimination: The role of belief in a just world and situational ambiguity.”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2(5): 568-585.

Dalbert, C. 1999. “The world is more just for me than generally: About the personal belief in a just world scale’s validity.” *Social Justice Research* 12(2): 79-98

Dalbert, C. 1997. “Coping with an unjust fate: The case of structural unemployment” *Social Justice Research* 10(2): 175-189.

Dalbert, C. .2001. *The justice motive as a personal resource: Dealing with challenges and critical life events.* Springer Science & Business Media.

Dalbert, C., U. Fisch, and L. Montada. 1992. “Is inequality unjust? Evaluating women's career chances.” *European Review of Applied Psychology / Revue Européenne de Psychologie Appliquée* 42(1): 11-18.

Foley, S., H. Y. Ngo, and R. Loi. 2006.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perceived personal gender discrimination: A study of solicitors in Hong Kong. *Sex Roles* 55(3): 197-208.

Hayes, A. F. 저. 이형권 역. 2015.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분석·조절분석 및 조절된 매개분석』. 파주: 신영사.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Lucas, T., S. Alexander, I. Firestone, and J. M. LeBreton. 2007. "Development and initial validation of a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 world measur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1): 71-82.
- Lucas, T., L. Zhdanova, and S. Alexander. 2011.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beliefs for self and others." *Journal of Individual Differences* 32(1): 14-25.
- Neville, H. A., R. L. Lilly, G. Duran, R. M. Lee, L. Browne. 2000. "Construction and initial validation of the color-blind racial attitudes scale(CoBRA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7(1): 59-70.
- Muller, D., C. M. Judd, V. Y. Yzerbyt. 2005. "When moderation is mediated and mediation is moderate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852-863.
- Pascoe, E. A., and L. Smart Richman. 2009.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35(4): 531-554.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ezrazi, A., and B. Gangloff. 2020. "Relations among gender, status and various dimensions of the belief in a just world and justice sensitivity." *Cognition, Brain, Behavior* 24(2): 93-121.
- Schmitt, M. T., N. R. Branscombe, T. Postmes, and A. Garcia. 2014. "The consequences of perceived discrimination for psychological well-being: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4): 921-948.

Shrout, P. E., and N. Bolger. 2002. "Mediation in experimental and nonexperimental studies: new procedures and recommendations." *Psychological Methods* 7(4): 422.

## The Relations of Belief in a Just World, Depression among Teachers: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and Gender

Nanmee Yang\*\*·Myungshin Lee\*\*\*·Eunsol Hong\*\*\*\*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by gender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elief in a just world,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and depression of teachers. For this purpose, we surveyed belief in a just world,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depression and gender of the 412 teachers working in secondary schools and the result was analyz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a just world and depression. Second, gender had moderation effect on belief in a just world and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The lower the belief in a just world,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In the case of men, the tendency was stronger than that of women. Thir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and gend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a just world and depression. In other words, the lower the belief in a just world, the higher the level of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which could lead to more experience of depression, and this pattern was more pronounced in men.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s well as th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were discussed.

keywords: depression among teachers, belief in a just world, perceived sex discrimination, moderated mediating effects of gender

투고일: 2021.09.29. 심사일: 2021.11.08. 게재확정일: 2021.11.16.

\* This document is a research conducted with the support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First Author,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for BK4 Program)

\*\*\* Professor,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 Corresponding Author, Master's Cours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sychology(for BK4 Program)